

정선생께

Dear Mr. Jeong

김석철 / (주)건축사사무소 아키반
by Kim Seok-Che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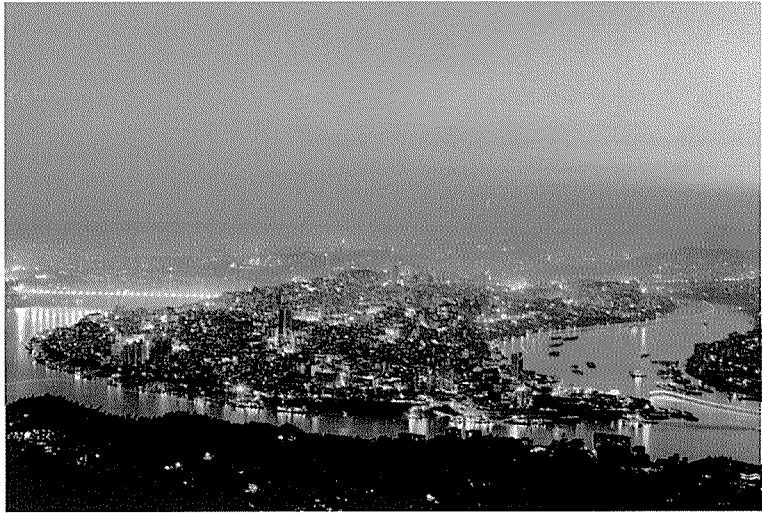
중경을 떠난 지 어느 사이 며칠이 지났습니다. 중경에서 지낸 지난 일주일이 마치 꿈같이 느껴집니다. 중경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이름이었습니다. 일제치하에서 대부분 지식인이 일본에 동조하고 있을 때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있던 중경이라는 도시는 한국인의 마지막 자존심의 보루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일본이 패망할때까지 중경에 임시정부가 있어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며 국체를 보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중경대학에서 선생을 만나면서 오랫동안 잊었던 국가와 민족이라는 말을 다시 생각하였습니다.

한국 역사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역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국민학교에 들어가기전 천자문, 동몽선습을 배웠고 중학교때 처음으로 읽은 소설이 삼국지였으며 고등학교, 대학교때 가장 깊이 영향을 받은 것이 사서삼경이었습니다. 중경의 국민당 정부가 대만으로 패주하고 중국에 인민의 정부인 공산당정권이 들어서면서 한국과 중국의 길은 닫힌 채 반 세기가 지났습니다.

선생께서는 세살때 경기도 광주의 본향을 떠나 중국에서 자라고 거기서 공부하며 독립을 기다렸으나 광복후 남북이 분단되어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망명의 세상을 사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만나는 순간 오래 만나던 이웃집 형님같은 친숙한 얼굴이었습니다. 문화혁명때 형제가 남북에 갈라 있다는 사실만으로 감옥에 가야 했고, 오해가 풀려 중국 정부장학생으로 동경대학에 유학하게 되고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고 중경대학에 교수로 부임하고 이학대학 학장이 되신 사연은 나라를 위해 나라를 떠났던 수많은 재외동포들이 겪은 간난의 세월을 알게 하는 서사시 같은 사실들이었습니다.

따님의 안내로 중경도심 한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임시정부청사를 방문했을 때 느꼈던 오늘 우리 모두에 대한 분노를 아직 잊지 못합니다. 범상한 자들이 때를 지어 비범한 인간을 핍박하고 이를 찾는 인간들이 의를 추구하는 인간을 밀어내고 역사를 기약하는 사람을 시리를 도모하는 인간들이 능멸해온 한국근대사의 질곡에 비추어 그분들의 외로운 조국광복운동을 생각하며 숙연하였습니다. 김구선생의 아드님 김신장군과 두분 사이의 깊은 교린지정의 뜻을 알 것 같습니다.

중경은 중국의 임시정부가 있던 곳이며 한국인들의 마지막 임시정부가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중경대학에서 북경 칭화대학의 강연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정과 열이 있었습니다. 강당을 메운 젊은 그들의 눈빛 속에 세계로 도약하는 중국의 미래를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중경 중심부의 야경

중경은 가능성이 큰 도시입니다. 1억3천만 사천성의 중심도시면서, 3천백만 인구의 세계최대 도시인 중경과 2천만 수도권의 중심도시 서울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동부해안에서 이루어진 개방과 개혁을 내륙으로 이어가는 중심도시로서만 아니라 인류 역사상 최대 토목사업의 하나인 양자강 삼협댐으로 중경은 북경과 상해를 넘어서는 세계도시로 부상할 전환의 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한때 대동아공영권을 꿈꾸던 일본이 서울을 대일본제국의 수도로 구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중경과 서울은 역사적, 지리적으로 주변도시를 아우르는 네트워크시티로서 유사한 많은 요소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산과 강 사이에 자리한 강변도시이며, 산상도시인 인구 천만 이상의 도시는 중경과 서울뿐이며, 기하학적 도시구조 대신 유기적 도시구조인 자연의 흐름을 우선하고 있는 곳도 서울과 중경뿐입니다.

서울의 미래가 한강에 있고 중경의 미래도 양자강에 있듯 두 도시는 산상의 도시면서 강안 네트워크의 도시입니다. 한강을 중심으로 전도시를 구조개혁해야 하는 서울과 삼협댐으로 해서 도시를 새롭게 구상해야 하는 중경이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는 「중경과 서울의 공동연구」를 함께 진행하기로 한 것은 참으로 뜻있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모님과 따님과 함께 했던 식탁에서 오간 대화속에 한국에 대한 선생님의 사랑, 중국문명에 대한 폭넓은 이해에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중국과 한국을 함께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만이 잃어버린 선린의 길을 다시 열 수 있을 것이며 중경이야말로 서울과 함께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뜻있는 도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중경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다주석굴의 거대한 야외 조각군, 만리장성에 버금가는 토목공사인 두지양렌의 수리사업과 중국의 지리를 바꾸게 될 삼협댐, 천년의 시간과 공간을 간직한 초치코우와 홍야동의 천년마을에서 많은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아름답고 당당한 따님 위위를 보면서 선생의 오랜 유량이 오히려 더 큰 도약의 계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예기치 못했던 서울과 중경 두도시의 비교연구가 두 도시 서로의 타산지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중경에서 돌아오자마자 나흘만에 중국은행 개관식으로 다시 북경에 와 이 글을 씁니다. 비록 일주일이었지만 중경에서의 나날 모두가 어느 사이 그리운 추억이 되었습니다. 다음 중경에 갈때는 서울의 술을 가져가 마음껏 마시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중경에 있는 일주일동안 처음 만났으면서도 진심어린 우정을 함께 하였던 건축대 학장님과 여러 교수들께 고마운 인사말을 전해주시시오. 다시 뵈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